

1. 웹서비스를 통한 한국의 의료정보 유통과, 의료정보 소비 패턴의 변화

● 전문 웹사이트를 통한 의료정보의 부분적 탐색(2000~)

IT 인터넷 산업의 활황에 따라 건강샘(healthKorea.net) 같은 건강전문(vertical Portal)사이트가 다수 등장하면서 병원정보, 건강관리, 건강상담 등 1차적 정보제공 형태의 초기 E-Health 모델이 모색되었다. '의료행위'의 구현을 통한 가치창출로는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나 일반 대중의 의료정보 탐색욕구의 부분적 해소가 시작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포털사이트를 통한 사용자 의료경험 정보 공유와 전문의학정보의 검색 개방 (2002~)

의사와 환자간 의료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개별 의료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정보들이 다음 '카페', 네이버 '지식검색' 등의 서비스를 통해 공유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정보유통이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참여군중의 입소문을 가장한 상업적인 활용과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주관적 정보 유통의 부작용도 제기되자 포털사업자 측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통한 전문의사의 답변제도 채택, 의학용어, 질병증상정보의 DB검색 편의와 정확한 건강정보의 제공을 강화하면서 전문 의학정보와 관련한 일반 네티즌에게도 접근이 크게 용이해졌다.

● 정부의 건강정보 E채널 활용 본격화(2005~)

정부에서도 온라인채널을 통한 공신력있는 정보제공이 공공재로서의 효용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립의료원이 운영하는 건강길라잡이(www.hp.g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hi.nhic.or.kr)등을 통한 종합적인 건강정보 제공 같은 대국민 예방적 인식 제고부터 응급의료 도우미(www.1339.or.kr)사이트를 통한 실시간병상정보 같은 직접적인 현황 공유까지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B형간염예방(hbv.cdc.go.kr), 조류인플루엔자(avian.cdc.go.kr), 신종인플루엔자(flu.cdc.go.kr)등의 사이트를 개설해 질병예방 채널로 활용했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cdc.go.kr)를 통해, 2009년 하반기 '신종플루 대유행' 시기에는 대국민 예방접종 사전예약에서 높은 참여를 얻기도 했다.

● 적극적 의료 소비자로서 온라인 평가와 참여, 정보 재확산(2006~)

현명한 환자(Smart Patient)의 등장과 의료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주권 행사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초기 포털사이트에서 환자별 폐쇄형 커뮤니티의 형태로 '동병상련'의 정서적 위로와 의료정보의 공유가 이뤄졌다면, 민간 개원가에서 점차 심미군(비만,성형,피부,치과 중심) 의료분야를 위주로 '의료산업화'의 움직임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이용자 커뮤니티들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 비보험진료분야중심으로 의료수가의 공유, 의료진 및 시술에 대한 평판을 다루며 여론을 주도하면서 일부는 의료소비 이익집단세력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또한 소비자 참여정보의 재구성을 통한 전문 웹서비스 모델로 발전해 2008년 개원가의 비급여의료수가 비교사이트(www.doctorwiz.com), 2009년 약국의 처방전과 복용한 약품에 대한 경험을 평가하는 RX차트 서비스(www.vitaminMD.org)까지도 등장했다. 나아가 소비자의 비교, 체험, 평가 정보가 집단지성을 통한 정보의 순화과정을 거치면서 검증된 가치있는 정보로서 블로그스피어상에서의 소셜 네트워킹 확산의 기능을 통한 정보의 유기적 진화 및 자발적 재확산과 함께 '트위터'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를 통해 기존 전통매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수의 대중에게 속보성 전달 파괴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팀블로그 서비스에 기반한 전문의료진의 자발적 정보제공 참여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근거한 정보소비 확산의 추세에 발맞춰 코리아헬스로그(koreahealthlog.com)가 2009년 출범해 주요 의료 이슈를 대중과 소통하는 시도가 본격화 되었다.

- **모바일로의 진화, 원격의료와 '증강현실'적 의료정보 소비 시작 (2010년~)**

2010년 SK마케팅앤컴퍼니는 SK텔레콤 T멤버쉽회원을 대상으로 3G영상통화에 기반한 '닥터큐브 의료영상상담'서비스를 의료행위가 아닌 무료상담의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작했다. KT는 애플 아이폰의 한국출시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서비스의 활성화를 촉발시키면서, 휴대폰위치정보(GPS) 기반 '증강현실'서비스로서 병원,약국 검색부터 의료정보 검색, 평판도 조회까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유통을 도와 E-Health의 범용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고 있다. 현명한 환자의 정보소비욕구의 즉각적인 충족과 관련 기술의 지원이 일상속에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면서 E-Health를 통한 일반 대중의 건강정보에 대한 의료소비자로서의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의 '증강'은 20대의 '디지털 네이티브'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디지털 헬스 정보소비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디지털정보격차(Digital Divide)따른 의료정보 진입장벽 해소**

민간에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고급 건강정보서비스의 이용은 일정 소득과 교육수준을 확보한 계층에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역량을 가지고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나, 저소득층 및 고연령층에서는 E-Health 이용의 진입장벽이 높아 E-Health의 효율성과 범용성을 고려할때는 산간 도서 지역민, 독거노인 등 의료사각지대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공보건 측면에서 공익적인 인프라 구축과 교육지원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 **원격건강관리법률의 확립을 통한 제도적 지원**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원격 건강관리법률이 통과된 곳은 건강관리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유사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장소에 대한 이슈가 미해결되어있다.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한 구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정비가 선결과제가 된다. 병원 밖에서 이용하는 각종 의료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E헬스 원격의료의 범위 및 개념 규정이 중요하다.

- **신기술 E-Health 장비의 신뢰성 확보**

기업들이 개발한 개인의료기기의 측정항목이 체지방량, 혈당, 혈압 등으로 아직 한정적이며 산업적으로도 적극적 투자가 선행되지 못하는 한계 속에 측정수치에대한 객관성 확보 이슈가 발생한다. 핵심 기술인 센싱의 정확도 및 측정 검증성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한 측정의 정확성이나 임상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을 지킨 건강정보 측정의 표준화와 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다양한 원격의료기기와 채널을 통해 습득되는 개인의료정보(Personal Health Record)의 유출과 사생활 노출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안전장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정보 유통관련 개인 병력 및 의료정보 및 생체정보 유출 오남용의 위험성이 내재한 만큼 정부 주도 건강정보의 표준화(HER)와 보안제도 정립이 전제된다..

- **신사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뉴미디어 E-헬스 서비스의 지불의사와의 괴리**

정보의 공개와 공유에 대한 일반인의 니즈는 높은 반면, 이와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와는 괴리가 있어 E-Health가 비즈니스모델로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개

인,보험사, 정부가 개입하는 특이한 구조의 의료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비용부담자의 상이한 이해관계속에 합의 도출에 많은 시간적 경제적 노력이 투입될 수 있다.

참고문헌

웹트렌드&전략리포트(김지현.북앤라이프.2009)

U헬스케어가 다가온다(김옥남.LG경제연구원(2009.8)

U헬스케어와 U응급의료(이병문,임용수 대한전자공학회(2008.12)

U헬스케어 서비스의동향(김명남,박희준,권기룡.한국멀티미디어학회 제13권(2009.6)

U헬스케어 환경상에서의 의료정보 (장덕성. 정보처리학회지 2008.1)